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7년 4월 16일(주일) 제1144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 캠페인!

26일부터 전국어디서나 단체 및 대관 가능

CGNTV가 제작한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4월 26일 개봉한다. 온누리교회 성인 공동체, 순과 다락방, 사역팀, 차세대, 대학청년부 등 모든 구성원들이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하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전국 어디서든지 단체 및 대관 관람이 가능하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영되는데 관객 수에 따라 상영관과 상영회차가 편성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

단체관람은 20인 이상일 때 적용된다. 요금이 1천 원 할인된다. 대관관람은 1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영화상영 일시와 상영관 지정이 가능하다. 요금도 1~2천 원 할인되고, 영화상영 전후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화 개봉 이전에도 대관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대관관람은 가급적이면 국내 온누리교회 인근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그맨 이홍렬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아주 감동적인 영화"라고 평했고, 배우 추상미는 "가장 깊고 큰 감동을 주는 인생영화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관객들을 초청했다.

문의: CGV 1544-1122
LOTTE 1544-8855
MEGABOX 1544-0070

/ 김현준 기자

칸타타, 노방전도 등 부활절 기념행사 풍성

지난주 고난주간 심야예배 평균 3,809명 참석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은 부활절 칸타타를 선보인다. 서빙고 1~4부 예배에서는 온누리워십콰이어, 양재 1~4부 예배에서는 주의빛찬양팀이 칸타타를 선보인다. 수원은 사회선교부 박람회를 개최하고, 평택 차세대 꿈땅은 노방전도와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한다. 강동 전도팀은 나비쇼핑몰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남양주와 양지는 어제(15일) 부활절 맞이 교회 및 주변 지역 대청소를 실시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심야예배(4월 10~14일)를 드렸다.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이주연 목사는 회개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금요일 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의 중보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도 간증을 쏟아냈다. 이태열 장로(마포공동체)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조보라 성도(여호수아공동체)는 "말로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온 믿음을 회개했다"고 간증했다.

김준용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는 하루 평균 3,809명이 참석했다. 서빙고 1,659명, 양재 1,066명, 부천과 수원 234명, 대전 189명, 남양주 79명, 평택 44명, 인천 87명, 강동 111명, 양지 107명이 참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회복축제 참가자 모집 한창

4월 26~28일 서빙고 본당 오전 10시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가자 모집이 한창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 4월 18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회비를 할인해 준다. 목회자, 사모, 신학생은 회비가 3만원이다.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국제 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에드 코리(Equipping hearts-Recovery Ministry 대표) 목사와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집회기간 동안 탁아실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자모실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2부 새벽예배부터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이나 교회로 오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회복축제가 끝나자마자 회복세미나가 이어진다. 4월 29일(토), 5월 1~2일(월, 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회비는 5만원, 사전등록 4만원**〈관련 기사 4-5면〉**.

문의: 02-3215-3532

캠퍼스_ 강동 온누리교회 반찬사역팀 6면 **예배_** 엄마품처럼 따뜻한 일본어예배 7면 **특집_** 고난주간 심야예배 8-9면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2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예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화려한 집은 아니더라도 비 안 새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소박한 내 이웃들이다. 그들은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국제비영리(INGO)단체 '해비타트'다. 해비타트는 집만 지어주는 단체가 아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취임한 윤형주 장로와 함께 해비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집 지어주고, 복음도 전하는 수호천사

한국해비타트 신임 이사장 윤형주 장로와 함께

집 지어주고 가정도 세워주는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윤형주 장로.

윤형주 장로는 지난달 15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해비타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비영리(INGO) 단체다.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윤형주 장로는 한국해비타트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설립 때부터 활동해왔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줄 아세요? 집입니다. 그런데 집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면서 소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윤 장로가 한국해비타트에서 처음 활동할 당시만 해도 집이 없거나 너무 열악한 곳에서 살면서 삶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집세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도 필요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집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녀교육과 생활수준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집이 생기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해비타트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은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소망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다.

"집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사랑의 마음들 모여 즐겁게 터를 닦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사랑의 집 지어요~♬"

윤 장로는 한국해비타트 로고송을 직접 만들 정도로 이 활동에 애정이 깊다.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애정이 더 깊어졌다. 한국해비타트 봉사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주축이다. 그들의 섬김과 실천으로 새 집이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봉사자들만 집짓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도 동참한다.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땀 흘려 지었다는 자부심이 생겨 집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다.

"봉사자들은 이웃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준다는 기대감으로, 새 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은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짓는다는 자부심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은 시간, 재정,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상없이 내놓습니다. 그 귀한 사람들의 연령도 다양합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집 한 채 지을 때마다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땅값이 비싸서 좋은 지역에 집을 짓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다 집을 지어주면 교통, 교육,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 한 채 짓는 일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힘은 들지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모른다. 윤 장로도 오랫동안 한국해비타트에서 활동하면서 잊지 못하는 사연들이 참 많다. 그 중에는 4살짜리 아이가 있는 가장의 간증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우냐고 물었더니 주인집 아이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집도 없는 애가 까분다는 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윤 장로는 그 아이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 우리는 집이 없냐"고 묻는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고 싶던 새 집을 지어줬다. 그뿐만이 아니라 웃음도 선물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제게 그러더군요. 정말 힘들어서 가족들과 같이 죽음을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한국해비타트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아직 세상은 살아볼만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란 말인가. 한국해비타트는 집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힘주어 설명하는 윤 장로의 말이 백번 이해가 됐다.

땀 흘리는 현장, 감격스러운 사람들

지금껏 한국해비타트의 활약은 대단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갔다.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강릉과 삼척의 재건을 도왔다. 태풍 루사는 역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재산피해액만 5조 4천 696억 원이나 됐고, 사망자 213명, 실종 33명 등 인명피해도 심각했다. 이재민도 9만 명이 발생했다. 윤 장로 가족은 국가적인 재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자선공연을 벌였다.

"2003년 미국 카네기홀에서 'Home to Home'이라는 자선공연을 했습니다.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을 지어주기 위한 공연이었어요. 공연 수익금으로 삼척에 집 한 채를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홀 공연 역사상 온 가족이 무대에 선 것은 윤 장로네가 처음이었다. 윤 장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영광 돌렸다. 공연 수익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일손을 거들었다.

한국해비타트는 집짓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있다.

"해비타트가 기독교 단체인 만큼 복음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집짓기를 마무리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에게 열쇠와 성경책을 전달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집에 살게 된 가족들과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축복기도도 합니다. 축복기도가 끝나면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감격스러운 현장이지요."

신앙과 삶은 하나!

윤형주 장로는 한국해비타트 외에도 한국백혈병소아암어린이연합회, 장애인사역, 재소자사역, 아버지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봉사하러 돌아다닌 거리를 계산하면 지구를 120바퀴 정도 돌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차 적응을 잘하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잠도 잘 잡니다. 한번은 하용조 목사님이 선교사 체질이라며 빨리 선교하러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은 물론 봉사와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쓰여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을 삶으로 살고 있는 윤 장로가 참 멋있다. 윤 장로네 올해 가족표어는 '순종으로 만나는 축복의 해'라고 한다. 그 귀한 윤 장로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 고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신명기 10:12~22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섬기십시오."

어떤 노래든지 반복되는 주제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주제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속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12~13절).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소중한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자신의 모든 정서를 다하여 최우선으로 몰입하는 애착심'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몰입되어 있는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사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서가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정서가 담겨있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 마음의 정서를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요일 2:15).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모든 정서를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도피적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 그 자체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수도원같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중세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지만 그 수도원의 타락과 부패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흐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종교적 금욕주의입니다. 세상을 어떤 종교적 울타리 밖의 세계로 해석한 것입니다.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규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세상속의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올바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립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덜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올바른 우선순위로 정립 됩니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종교적으로 집착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욕구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당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정말 멋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도 가르쳐주십니다. 사람은 친밀해질수록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가족간에 다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친밀한데 그 친밀함 속에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서로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함께 경외심을 가져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유지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경외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경외함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신 10:16).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동시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대로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두려워하면 악한 일에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선한 이를 두려워하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17~18절).

'신의 신, 주의 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높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관심을 가지신 대상은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일에 우리가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도 함께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내 몸과 같이' 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13면에 계속〉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4

특집대담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열흘 앞으로

"영혼, 정서, 마음이 보약 먹는 시간"

권용한 장로(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구인유 집사(기쁨의 샘 소그룹 인도자)

감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축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혜와 자유 마음껏 누리는 場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회복축제는 말 그대로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집회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국제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 에드 코리(Equipping hearts-Recovery Ministry 대표) 목사와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벌써부터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회복사역본부 리더십(본부장 이기원 목사, 한마음회복예배 담당 권용한 장로, 기쁨의 샘 소그룹 인도자 구인유 집사)들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줬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회복축제가 막 오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기원 목사(이하 이): "회복축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둘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축제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복사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회복사역을 정착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14년 동안 다져온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회복축제 주제가 '은혜의 만찬'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구인유 집사(이하 구): "감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만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만찬을 먹고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회복축제가 과거의 문제와 아픔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 실시되는 회복축제와 회복사역은 예방적 차원입니다.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그 시작입니다. 문제에 대응하는 면역체계를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맞습니다. 감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은혜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만찬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용기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네 가지 만찬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영혼, 정서, 마음이 보약을 먹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권용한 장로(이하 권):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 되고, 치유되려면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 밭을 다져야 합니다."

강사로 초청 된 에드 코리 목사와 박성심 사모가 궁금합니다.

이: "이번 회복축제의 강사님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적화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에드 코리 목사님은 국제 마약남용중독연맹의 사무총장이자 예수전도단 치유회복사역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회복으로의 초대,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은혜, 은혜와 두려움(동반의존 극복하기), 뇌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제로 강의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박성심 사모님은 가족상담 심리치료사입니다. 〈임마누엘 일기〉의 저자이자 롭노우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강의할 것입니다. 성공지향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장시켜나가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구: "이번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에 초청된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들을 만나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 강의를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자동적으로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 "회복축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와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 가족, 이웃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회복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합니다.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복축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찬을 마음껏 먹고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임재라는 만찬을 먹고 삶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아름다운 집회에 초청합니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5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소개

근심이 자유! 상처가 치유! 묶임이 놓임!

회복예배, 회복소그룹, 회복사역학교, 상담실 운영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적, 육체적, 영적 회복을 원한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한다. 치유와 회복, 온전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의 문만 두드리면 된다.

온누리회복사역은 회복예배, 회복소그룹, 회복사역학교,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예배에는 금요회복예배,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월요어노인팅집회가 있다.

'금요회복예배'는 말씀과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최적화된 맞춤예배다.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치유 받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다. 예배 중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주 동안 이어지는 새가족반을 수료하면 회복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금요회복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2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돕는 예배다. 전문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한마음순모임, 메시지테라피(한마음 정신의학 강의), 한마음 수련회, 한마음 상담, 한마음 치유활동, 한마음 치유기도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내면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등산, 영화감상,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통해 영육 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101호, 양재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에서 진행된다.

'월요어노인팅집회'는 성령치유집회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만성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간증이 풍성한 집회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린다.

깨어나고 살아나는 회복소그룹과 스쿨

'회복소그룹'은 5~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모임이다. 겪고 있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문제임을 깨닫고, 자유와 지지와 회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금요회복예배를 드리고 나서 진행된다.

'회복소그룹'에는 열린그룹, 자아회복반, 행복반과 이슈그룹인 동반의존, 수치, 기쁨의 샘 그룹이 있다. 열린그룹, 자아회복반, 행복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심화과정인 이슈그룹에 들어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회복소그룹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약속된다.

'회복사역학교'는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내적치유학교, 기쁨의 회복학교, 하트스쿨(어린이, 부모, 사역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프리덤스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치유사역자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내적치유학교'는 회복사역 전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다. 2박 3일 동안 기도원같이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내면의 상처, 회개, 용서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단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기쁨의 회복학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적치유학교의 심화 과정으로 삶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트스쿨'은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회복학교다. 어린이하트스쿨, 부모하트스쿨, 사역자하트스쿨이 있다. 어린이하트스쿨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술, 음악, 놀이 등 다양한 예술 매체와 예배를 통해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있다.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부모하트스쿨'은 자녀와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갈등 해결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사역자하트스쿨'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스쿨이다. 사역자하트스쿨을 수료하면 어린이 하트스쿨과 부모 하트스쿨에서 사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돕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자 비전이다.

'프리덤스쿨'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장애물을 깨트리고, 진리의 자유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수치심, 분노, 거절, 두려움 등으로 생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안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 가계도를 그리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할 수 있는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치유사역자스쿨'은 월요어노인팅집회를 섬기는 치유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치유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배우고, 월요어노인팅집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온누리상담센터'도 있다. MBTI, 애니어그램 등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법률상담 같은 특수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회복사역 예배 및 상담센터

예배 / 센터	문 의
금요회복예배	전남득 팀장 010-6210-6690
서빙고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임선양 팀장 010-9782-7733
양재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이세헌 팀장 010-2107-6703
월요어노인팅	김난영 팀장 010-4766-5221
서빙고 온누리상담센터	이수영 간사 02-3215-3675
양재 온누리상담센터	김정은 간사 02-570-7537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6

이웃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반찬'

강동 반찬사역팀의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지난주에 오는 줄 알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

"찬송가 한 곡만 더 부르고 가."

지난 주 토요일 강동 온누리교회 반찬사역팀과 만난 이웃들이 건넨 말이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어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말씀을 다하셨을까.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집 앞 담장에 구멍을 뚫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까. 간절한 눈빛으로 찬송가 한 곡만 더 부르고 가라는 어르신이 지금도 눈에 밟힌다. 그렇게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창 클 나이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도 반찬을 배달해주고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사람이 그립고, 찾아오는 이들이 애틋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웃들에게 강동 반찬사역팀은 한 줄기 빛이다. 그 귀한 발걸음에 동행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반찬사역팀이 첫 번째로 방문한 김씨 할아버지댁.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나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갔다. 그 맛있는 냄새의 근원지는 강동 온누리교회 자모실이었다. 십여 명의 성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날 만든 두부부침과 갖은 채소와 양념으로 버무린 돼지고기 볶음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였는지 모른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콩자반, 멸치볶음, 오이무침도 있었다. 이 맛있는 음식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음식 만드는 성도들의 표정이었다. 마치 잔칫집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식단 짜기부터 재료구입, 만들기까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성도들은 강동 온누리교회 긍휼사역 반찬사역팀원들이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반찬을 만들고 있다. 원종호 장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어디로 배달되는지를 소개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인근에 사는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이날 준비한 반찬은 두부조림, 돼지고기 볶음, 콩자반, 멸치볶음, 오이무침까지 총 5가지였다. 반찬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식단을 짜서 영양까지 생각한다. 손수 배달도 한다. 식단 짜기부터 음식배달까지 한순간도 정성이 빠지지 않는다. 식단은 김용숙 성도가 짠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과 금방 먹을 수 있는 특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반찬들은 대부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학령기 아동들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영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음식재료는 박옥희 집사가 직접 구입한다.

"조금은 비싸도 좋은 재료들만 구입하려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어요."

식단을 짜고 음식재료를 구입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요리를 한다. 변변한 주방 시설은 없어도 반찬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웃들에게 배달할 반찬을 만들면서 봉사자들끼리 끈끈한 우애도 나눈다. 반찬사역팀의 주된 대화 주제는 반찬 배달하면서 만난 이웃들이다. 박씨 할머니 첫째 손자가 대학에 들어간 소식, 찬송가를 유독 좋아하는 김씨 할머니와 찬송가 7곡 부른 일 등 이야기꽃이 핀다.

반찬과 함께 사랑도 배달하다

조리가 끝나면 배달이 시작된다. 이날은 한성자 권사, 박경애 집사, 조소겸 집사, 윤여정 집사가 반찬을 배달했다. 이날 반찬을 배달한 가정은 천호동 일대 7가정이다. 반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듬뿍 전해주고 온다.

처음으로 만난 이웃은 중풍을 앓고 있는 아내와 어린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였다. 빌딩 숲 한가운데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을 지나면 김씨 할아버지네 집이 나온다.

"지난주에 오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렸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실까. 한참동안이나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다. 지난 2주 동안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승합차를 팔았고, 아내와 싸웠고, 가구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할아버지에게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한결같이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근처에 우리 형제자매 9남매가 살고 있어도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데…"

중풍을 앓고 있어 집에서만 지내는 김씨 할아버지 아내는 사람을 더 많이 그리워하신다. 오죽 사람이 그리웠으면 집 앞 담장에 구멍을 뚫어 놓고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볼품없는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또 했다. 지난겨울에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가 후원해준 연탄 덕분에 따듯하게 보냈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난 이웃은 홀로 손자손녀를 돌보는 윤씨 할머니였다. 지방에서 일하는 아들 대신 손자손녀를 돌보고 계신다. 반찬사역팀을 만나자마자 아이들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태권도 사범을 꿈꾸는 고등학생 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줬고, 대학에 들어간 손자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했다.

세 번째 만난 이웃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 할아버지다. 알콜중독에 빠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씨 할아버지는 요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야기도 잘 하고, 걷기도 잘 했는데 많이 부자연스러워졌다. 그저 아이같이 웃기만 하셨다. 그래도 강동 온누리교회 반찬사역팀을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모른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집 앞까지 나와 반찬사역팀원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다.

이 외에도 강동 사랑부에 나오는 재우, 가록이네, 태어난 지 100일 된 하준이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박씨 아저씨네, 찬송가를 좋아하는 김씨 할머니네도 찾아갔다.

마치 예수님처럼

반찬사역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온 이웃들도 있다. 지적장애인 재우와 가록이는 반찬사역팀을 만나고 강동 사랑부에 출석하고 있다. 재우와 가록이는 반찬사역팀을 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었다. 하나님 이야기는 당연히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반찬사역팀이 아니었다.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동 사랑부 출석을 끊임없이 권유했다. 사실 누구보다 재우와 가록이에게 강동 사랑부 활동이 필요했다. 지적장애인 엄마와 두 자녀가 함께 외출하고 문화생활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반찬사역팀에게 재우와 가록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강동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매주 주일 재우와 가록이 집까지 찾아가 차량봉사를 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에 푹 빠져있다.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준이네를 방문할 때는 반찬과 함께 기저귀를 들고 갔다. 얼마 전 하준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혼모인 하준이 엄마는 "엄마 같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찬송가를 무척 좋아하는 김씨 할머니네도 방문했다. 김씨 할머니는 강동 온누리교회 반찬사역팀이 만나는 이웃 중에서 유일한 독거노인이다. 김씨 할머니는 "오늘은 찬송가 3곡만 부르고 가라"고 했다. 김씨 할머니는 반찬사역팀이 오면 꼭 찬송가를 부른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찬송을 부르고 돌아서려는데 김씨 할머니가 기자의 바지춤을 붙잡고 가면서 먹으라며 사탕 한 움큼을 쥐어주셨다.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강동 온누리교회 긍휼사역 반찬사역팀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맞이해주고, 외로울 때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마치 예수님처럼.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7

“엄마 품처럼 따뜻한 일본어예배”

한국 거주 일본인들의 등불이자 희망!

이시하라 노리코 자매

다케우치 치하루 자매

파프스클럽 여름캠프에 참석한 일본 초등학생들.

“힘들고 외롭기만 하던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가 캄캄하기만 했던 삶에 등불이 되어줬다. 희망을 선물해줬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시하라 노리코와 다케우치 치하루 자매다. 낯선 땅 한국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았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도 끝도 없이 샘솟는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들이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한시도 그녀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사랑도 너무 좋았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가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이시하라 노리코 자매는 2006년 한국에 왔다.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말이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던 한국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인간관계는 물론 가족관계까지 무척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몰랐어요.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죠.”

삶에 대한 회의가 절정에 다다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늘 그래왔듯이 어두컴컴한 집에서 술을 들이켜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궁금했다. 애절한 외마디를 외치고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와 봐요.”

그때였다.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보였다. 순간 세상이 어두워지더니 그 가운데서 밝은 빛이 솟아났다. 그 빛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빛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밝아지는데 꼭 사람모양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나를 믿어라’고 말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변화가 찾아왔다.

“부엌으로 부서지는 아침햇살이 그렇게 반갑고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원래 빛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얼마나 싫었으면 항상 집에 커튼을 쳐놨겠어요. 그런 제가 난생 처음으로 빛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그녀조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었다. 무척 신기했다. 난생 처음 성경책을 사서 읽으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요.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 길로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를 찾아왔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았다. 지금 그녀는 일대일 양육자반을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있다.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처럼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회복되었듯이 그들도 살아날 것을 믿거든요.”

지금 그녀의 표정에서는 빛이 났다. 우울해하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 중심에 일본어예배가 있다

일본어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본인 자매가 한 명 더 있다. 2012년 9월 한국 유학길에 오른 다케우치 치하루 자매다. 당시 그녀는 몹시 방황하고 있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유학을 온 것도 아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일본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도망치듯 한국에 왔어요.”

한국말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연세어학당에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유학생을 위한 파티’라고 적힌 전단지를 받았다. 파티라는 말자체가 그녀를 설레게 했다. 무엇인가에 홀리듯 파티장을 찾았다. 그 파티의 주체는 다름 아닌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였다. 일본어예배가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글로벌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따뜻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글로벌프렌즈에서 만난 사람들이 방황하던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사랑이 외로움도 달래줬다. 조금씩 교회에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글로벌프렌즈에서 만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왠지 무섭게 느껴졌었다.

“어렵게 교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2주를 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꾸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꾸만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다시 갔는데 그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거든요.”

일대일 제자양육도 그녀의 신앙 성숙에 큰 보탬이 됐다. 일대일 양육자가 건넨 한 권의 성경만화책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 순간 마음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때를 회상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세례 받던 날도 잊을 수 없다.

“세례 받던 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제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 도망치듯 한국에 온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녀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됐다. 지금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일본어예배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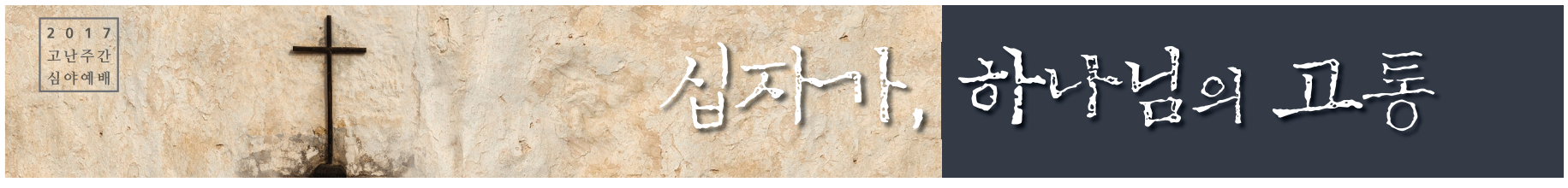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을 품고 돕고 싶어요.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요.”

이시하라 노리코와 다케우치 치하루 자매처럼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와서 회복된 일본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심에 일본어예배가 있다. 일본어예배는 1989년 일본 인구의 1%를 복음화(현재 0.6%)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창립됐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요, 비전이다. 매주 약 17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일본어예배에서 일본 현지로 파송한 선교사가 20여 명이나 된다.

일본어예배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 매주 주일 일본어예배에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어예배는 성인 오후 2시 서빙고 한동홀, 중고등부 오후 4시 본관 5층, 청년부 오후 4시 믿음홀에서 드린다. 월요일은 글로벌프렌즈(Global Friends) 사역이 진행된다. 일본인 유학생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요일에는 일본어 중급반이 진행된다. 일본어 교육을 통해 일본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Acts29홀에서 열린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국제결혼 가정을 돌보는 ‘코히쯔지’ 사역을 실시한다. 한일 간의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는 수요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자모실에서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금요일에는 한글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동부이촌동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부들이 대상이다. 각 지역별 순모임도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에는 푸치파프스(Petit Pappus)와 파프스클럽(Pappus Club) 사역이 있다. 푸치파프스는 0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파프스클럽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인 어린이나 한일 국제가정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일본 아웃리치와 협력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문의: 02-3215-3702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8



4월 10일 월요일 / 마태복음 26:14~25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유다는 은전 30냥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도대체 그의 속성이 어떻기에 스승까지 팔아먹은 걸까요. 성경을 보면 유다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이름 '가룟 유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사람, 가룟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룟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강대한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쪽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200년을 더 버틸 수 있었을 정도로 결속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의 소속감과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다는 분명 유다 지파의 재건을 꿈꿨을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자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찌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의 돈을 맡고 있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 4:4).

유다는 영혼 구원, 죄 사함,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보다 물질적인 것, 사회복지적 측면을 더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넷째, 유다에게는 신앙고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난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신앙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때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4월 11일 화요일 / 마태복음 26:26~32

참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신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유다에게는 사탄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략)…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눅 22:1~4).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배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출신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 스캇 펙은 불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귀신들림 등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서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우주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팽팽한 대결 속에 끼어 있다. 이 대결의 전투장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이다. 인생의 의미는 전적으로 이 전투에 달려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영이 어떤 영혼을 거처로 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악한 영혼이 들어갑니다. 내면이 어둡고, 죄 가운데 있으면 악한 영혼이 거처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죄에 빠져있는 영혼을 거처로 삼습니다. 악한 영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죄짓고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물질, 권력, 자기 자신, 철학의 우상에 빠진 영혼들에게 사탄이 가장 쉽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합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더라도 회개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사탄이 꼭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닥쳤을 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 때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 번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수요일 / 누가복음 23:13~25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나'입니다

이재훈 목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군병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주어지면 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성경 역사에서 불과 4시간 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죽음의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마음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를 보전하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악을 이용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빌라도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책임들을 대표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막 15:10).

둘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말했습니다(눅 23:22).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넘겼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보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노려서 예수님 죽이기를 강요했고, 결국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고 진실을 거짓에게 넘겨주었기에 그는 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다, 빌라도, 유대 지도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넘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와 같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넘기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가룟 유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자, 빌라도의 비겁함과 로마 군병의 잔인함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군중 속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내용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9

4월 13일 목요일 / 누가복음 23:26~32

지금은 죄와 심판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길을 '고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소리와 대조되는 울음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뒤돌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의 슬픔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 로마 군병, 군중들의 조롱에도 동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인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28절).

이 말씀은 여인들의 울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눈물을 받아주셨고, 고마워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동정하려고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면 몸이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역사의 고통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언도되었을 때 빌라도 자신은 죄가 없다며 손을 씻자 백성들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마 27:26).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장담대로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장차 겪게 될 역사의 고통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해 울지 말고, 다가올 역사의 고통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고, 물질우상숭배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제 판단도 기계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유대민족의 미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할 최후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29절).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최후의 심판의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며 울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심판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장차 다가올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될 심판의 고통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역사의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금요일 / 누가복음 23:33~43

십자가 위에서 입증된 용서의 왕

이재훈 담임목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곱 마디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김에서 나온 고백은 죄인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34절).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과 유대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군중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심할수록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죄인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심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사53:12).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죄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동사 원형을 보면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죄수 두 명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았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막 15:32).

두 죄수가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40절).

마가복음에서는 두 죄수가 함께 조롱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두 죄수는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흉악한 죄인으로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 명의 죄수가 변화된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용서의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강력한 법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이 땅의 그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10

특집_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을 찾아서

1. 프랑스 개혁신앙가 피터 왈도
2. 영국의 개혁신앙가 위클리프
3. 스위스의 개혁신앙가 존 칼빈
4.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1517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치로 내걸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위선에 맞섰다.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쇄신을 요구한 종교개혁가는 루터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가들이 있다. 이기훈 목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성경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영국의 개혁신앙가 '요한 위클리프'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제자양육,
성동광진공동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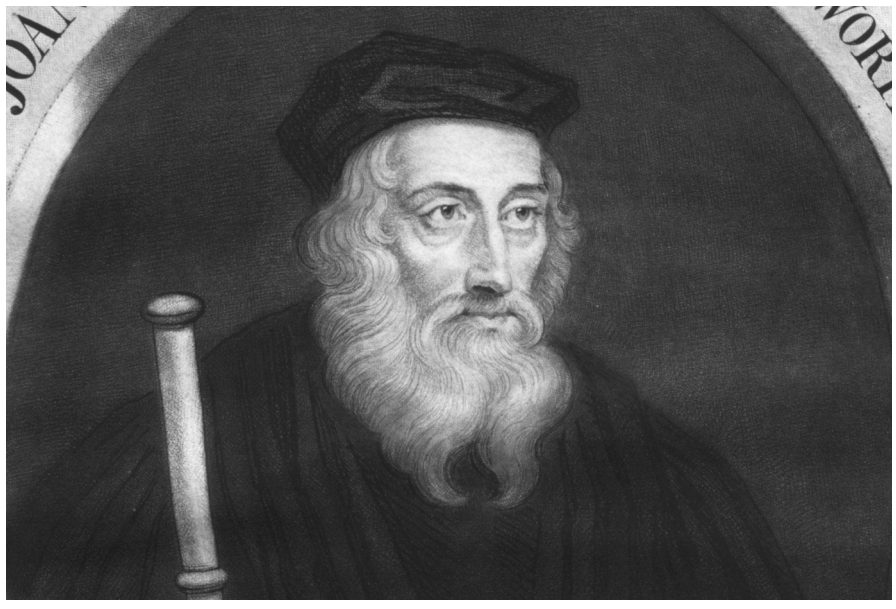
런던으로 여행가는 성도가 있다면 대영박물관이나 버킹검궁만 보지 말고 역사가 오래된 유명한 대학 도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캠브리지에 있는 킹스칼리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성합창단이 있다. 대학채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참석하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관람할 수 있고, 합창단의 찬양도 들을 수 있다.

12세기 말, 파리대학교가 영국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자 세워진 것으로 보는 옥스퍼드대학교는 '홀리 클럽(Holy Club)'이 유명하다. 요한 웨슬리(감리교회 창시자)와 찰스 웨슬리 형제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원조다. 그들은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말씀을 적용하는 신앙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신앙부흥은 이 대학이 배출한 '요한 위클리프'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위클리프는 영국 요크셔(Yorkshire)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1374년 위클리프는 왕의 임명으로 교구장이 되기도 하였고, 정부사절로 파견될 정도로 영국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위클리프는 유능한 신학자요, 교수로서 당시 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비판하였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면서 명확했다. 그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경만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강조하였다.

진정한 개혁정신 가진 선지자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 권력'에 관한 글에서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황 무오설'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세속화된 교황을 이단으로 간주하면서 교황 불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교황을 신격화하던 당시 로마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각 사람에게 재산을 허락하신 것은 이웃을 섬기게 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고위 성직자들이 물질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당시 성직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앞장섰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전파한 '요한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교리적으로도 당시 가톨릭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구원은 성직자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였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사제가 하였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인 사제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구원관이었다.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먼저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곧 사제'라고 하였다. 또한 성자를 선정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로 규정하였고, 성지순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을 위배하는 것임을 밝혔다.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화체설을 부인하였으며,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와 면죄부를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라고 주장하였다.

위클리프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며, 모든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모든 주교와 사제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성경은 외국어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없었다. 가졌다 하더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쥔 많은 성도들은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말씀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얻은 영감과 축복을 영국 전역에 선포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는 일명 '방랑 설교자'들을 많이 파송하였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롤라드(가난한 목자들)'라고 불렀다. 롤라드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전하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는 1384년 말씀 부흥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은혜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갔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교회의 제도 그리고 성직자의 생활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개혁정신을 가진 선지자 같았다.

죽음 무릅쓰면서도 말씀 중심 신앙을

가톨릭교회는 롤라드의 주장과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위클리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들의 주장을 교회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결국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박해가 점점 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처신은 1229년 프랑스 남부도시 투룰스(Toulouse)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었다. 그때 로마 가톨릭교회가 결정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 셋째, 이단 심문소를 설치한다. 넷째, 이단을 제거하지 않는 주교들은 파문시킨다. 다섯째, 이단으로 판명된 평신도들의 재산은 박탈하고 사제들은 사례를 중지한다. 여섯째, 이단 처벌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한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 피터 왈도의 개혁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반(反)성경적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1409년 런던 종교회의에서는 롤라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롤라드를 체포하여 화형에 처했다.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는 위클리프를 정죄하고 그의 모든 작품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소각시켰으며 심지어는 그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태워서 강에다 뿌리게 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행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핍박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롤라드는 제거되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켰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영국의 개신교가 형성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의 많은 저서들은 오늘날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불리는 보헤미안 신앙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얀 후스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이처럼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개혁신앙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체코로 이어졌다. 오늘날 위클리프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성경번역선교회는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성경 번역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운동이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종교개혁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팎에서 개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소리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과거 가톨릭교회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비추어 교회는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의 삶이 성경에 합당한 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와 신앙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11

부활절에 보면 더 좋은 영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다. 부활절만큼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이렇게 기쁜 날을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재개봉 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느끼고, 구원의 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영화다.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영화도 있다. '신은 죽지 않았다2'가 바로 그것이다. 부활절에 보면 더 좋은 영화들이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려냈다. 지난 10일 재개봉했다. 2004년 개봉했던 영화가 13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등장했다.

2004년 개봉했을 당시 미국에서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 종교영화 중에서 흥행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를 본 은행 강도가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를 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눈물을 쏟아냈고, 넌크리스천들도 예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영화가 부활절을 맞이해 재개봉했다. 이번에는 HD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과 음질을 느낄 수 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해 냈다. 작은 소품부터 세트장까지 예수님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연하려고 노력했다. 배우들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고대 아람어로 연기해서 현실감을 더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실제처럼 느껴져서 차마 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이유다.

감독 멜 깁슨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15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굳건하게 이 영화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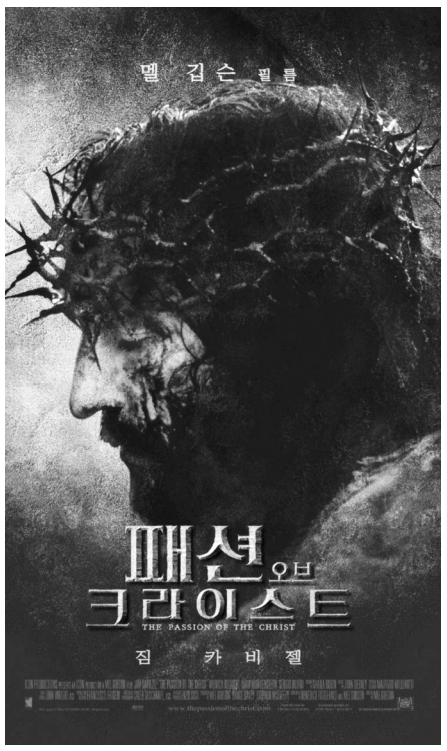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값없는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껴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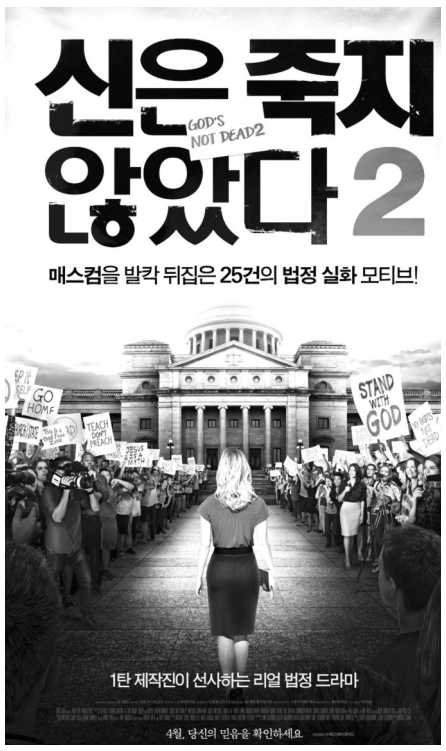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13일 '신은 죽지 않았다2'가 재개봉 했다. 넌크리스천과 함께 봐도 거부감이 전혀 없는 영화다. 1년 만에 스크린에 다시 등장했다. 제목이 '신은 죽지 않았다2' 지만 전편과 내용이 무관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교사 '그레이스'다. 그녀는 수업 중에 한 여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당당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한다. 그 단순한 일이 그녀를 법정에 서게 했다. 그녀는 재판을 받으면서 만난 국선 변호사 '톰 엔들러'와 함께 법정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노력한다.

이 영화를 보다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크리스천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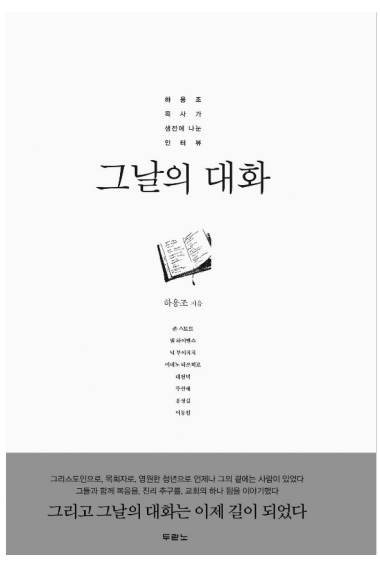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2'.

두란노 신간

하용조 목사의 대화기록



〈그날의 대화〉
하용조 저 | 두란노 | 13,000원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살까. 흔히 고민, 질문, 이슈 등을 이야기한다. 대화하다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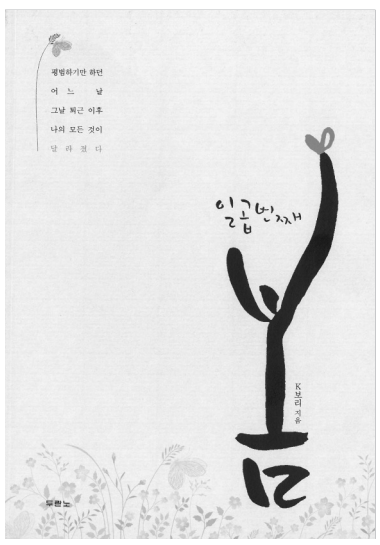
〈그날의 대화〉는 하용조 목사의 생전 대화 기록을 엮었다. 옥한흠, 홍정길, 이동원 목사, 대천덕 신부, 주선애 교수, 존 스토트, 닉 부이치치 등 16명과 나눈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고난을 극복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故 하용조 목사는 사람들과 진리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한국 교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제 소금으로서 교회의 다른 면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위상과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강조해야 할 교회론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는 하용조 목사가 비전의 모자이크를 하나씩 맞춰 나간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졌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용조 목사가 맞춰나간 비전을 따라가 볼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고, 평신도들에게는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이유



〈일곱 번째 봄〉
K보리 저 | 두란노 | 15,000원

예상치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어떨까. 그것도 소설 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말이다. 〈일곱 번째 봄〉의 저자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을 경험했다.

이 책은 오롯이 저자의 삶을 담았다. 저자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서른한 살 여자였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먹은 항생제 한 알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변해버렸다. 손톱과 발톱은 녹아내렸다.

그녀가 걸린 병은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다. 만 명 중 한 명이 걸린다는 희귀병이다. 소독하려고 드레싱할 때마다 고통이 온몸을 뒤덮었다. 몸이 타는 것 같다. 그 끔찍한 고통을 하루에 세 번이나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믿음 때문이다.

그녀는 7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떨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그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는 "내게 찾아온 병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과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우나 그 가족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12

집사, 권사 임직 기준 확정

6월 10일까지 기준 충족해야

지난 13일 열린 당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온누리교회 집사, 권사 임직 자격과 일정이 확정됐다〈표 참조〉.

안수집사 35세 이상(1982년 2월), 세례일과 온누리교회 등록일 5년 이상(2012년 2월), 권사 50세 이상(1967년 2월), 세례일과 교회 등록일 8년 이상(2009년 2월),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성도, 명예권사 70세 이상(1947년 2월), 세례일 5년 이상, 교회 등록일 3년 이상,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성도다.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2016년 상반기~2017년 4월 말까지 아이케어 순참석 기준 15회 이상), 십일조 등 헌금생활을 성실히 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직대상자들은 6월 10일까지 Basic QT 과정을 이수하고, 3명 이상 일대일 제자양육을 완료해야 한다. 필수 양육과정 10학점도 충족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준 구분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연령	• 35세 이상(1982년 2월 말)	• 50세 이상(1967년 2월 말)	• 70세 이상(1947년 2월 말)
세례일	• 5년 이상(2012년 2월 말)	• 8년 이상(2009년 2월 말)	• 5년 이상(2012년 2월 말)
교회등록일	• 5년 이상(2012년 2월 말)	• 8년 이상(2009년 2월 말) •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자 (2013년 12월 임직 및 이전 안수집사 임직자)	• 3년 이상(2014년 2월 말)
기본 양육과정	• Basic QT 이수한 자(6월 10일까지)		•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일대일 양육	• 일대일 3명 이상 양육 완료한 자(6월 10일까지)		
필수 양육과정	• 필수선택 10학점 또는 • 필수선택 8학점 + 자유선택 2학점 또는 • 필수선택 6학점 + 자유선택 4학점(6월 10일까지)		
공통	•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2016년 상반기 – 2017년 4월 말 아이케어 순참석 기준 15회 이상) • 십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기준 15회 이상 •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월 비전헌금 '1억 6180만 원 봉헌'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후원

4월 비전헌금은 1억 6180만원을 봉헌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는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스리랑카 베다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이다.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라투갈러 마을에서 실시된다. 이 마을에는 119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가장들이 무기력에 빠져있고, 아이들마저 꿈을 잃어가고 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김창옥 사무총장은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 식수, 교육, 농업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5월 26~27일 양재, 28일 장충실내체육관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과 안내데스크에서 하면된다. 4월 25일까지 등록하면 2만 5천원, 5월 16일까지 등록하면 3만원, 당일 접수는 3만 5천원이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5월 26일과 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5월 12일과 19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중보기도회에서는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부흥, 카운트다운 컨퍼런스에 3,500명, 연합집회에 6,000명 참석, 300명의 청년 선교헌신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예정이다.

계좌:하나은행 573-910009-29305
(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문의: 02-570-7345

'러브소나타 도쿄' 대회 참가자 모집

4월 23일부터 4주 동안 접수

7월 25일과 26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막 오르는 '러브소나타 도쿄' 참가자 모집을 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4월 23일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도쿄 대회에 참가할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4월 2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나 러브소나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러브소나타 도쿄 대회에서는 교회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7월 25일), 리더십 포럼(한일교류만찬)과 러브소나타 전도집회(7월 26일)가 막 오른다. 교회 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가 강의하고, 러브소나타 전도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도쿄 현지 실행위원회는 지난 20일 7차 실행위원회를 열었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합동기도회를 열고 있다. 현재까지 39개 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는 러브소나타 10주년이다. 온누리교회는 2007년 3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북단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돌며 문화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02-749-1149

예손 그림 기획전 개최

지적장애 화가 23명, 작품 400여 점 전시

번동코이노니아(서울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지적장애인 화가(이하 예손) 23명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서울숲 L타워에서 'YESON 그림 기획전'을 개최했다. 그림 400여 점을 전시했다.

이번 YESON 그림 기획전은 당초 6일과 7일 이틀 동안만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어제(15일)까지 연장됐다. 강동 온누리교회 김호성 성도는 3년 전 구입해 소장하고 있던 예손 화가들의 작품 180여 점을 기증해서 전시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전시회 장소도 제공했다.

이번 전시회에 두 번째 방문했다는 김정숙 권사(서빙고공동체)는 "전시회에 걸린 벚꽃 그림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했고, 정호옥 목사(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KIBI·이스라엘 친선 행사 개최

KIBI가 이스라엘 세계 유대기초재단(Keren Hayesod)의 세계의장 Mr.Eliezer Mood Sandberg와 이스라엘 국회산하 크리스천연합위원회 대표 Mr. Josh Reinsrein 방한에 맞춰 이스라엘과 한국 기독교계가 친선의 장(場)을 마련한다.

4월 24일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Mr.Eliezer Mood Sandberg와 Mr. Josh Reinsrein 환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 기독교계와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친밀한 관계 도모가 목적이다.

통일 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

4월 22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통일의 미중물, 통일의 재원, 통일 사역자, 통일 준비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탈북자 복음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탈북자 복음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4월 22일(토)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통일 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탈북자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총 출동한다.

이번 통일 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탈북민 접근성 문제', 2부는 '탈북민 복음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영식 목사 '탈북민 접근과 유대관계', 이빌립 목사 '해외 탈북자 접근성', 허원희 목사 '구제 및 사역을 통한 접근' 2부에서는 최광 목사 '성경 통독을 통한 복음화', 김상수 목사 '탈북자 양육 방법', 하광민 목사 '탈북민의 제자화 사역'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문규 목사, 이수봉 목사, 조요셉 목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10-4447-3553

청파노인복지센터 개관 8주년 감사예배

성장현 용산구청장, 정호옥 상임이사 등 참석

지난 12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관 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온누리복지재단 조항진 장로, 정호옥 상임이사, 백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예배에서는 박성은 목사가 '행복의 길'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삶에 부족함을 채워주고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정호옥 상임이사는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백혁 센터장은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바로잡습니다

- 지난주 신문(9일) 10면 금요치유예배 소그룹 간증문의 기고자 이름이 오윤석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70416-1144-_2012528 -90216 17. 4. 14. 11:16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자기사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기에 대한 사랑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부족한 부분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자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자체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19절).

너희 자신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 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줌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도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 끼든 두 끼든 금식해서 그 식사비를 헌금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 헌금은 난민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아들, 노숙인들, 탈북민들, 이주노동자,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주자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있다면 이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려고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이주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만 이용하고 그들의 진정한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더 올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4월 26일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조명한 영화가 개봉하고, 두란노서원에서는 아주 오래전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운 주일학교에서 자란 백춘성 장로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열 네 명의 과부를 스스로 입양해서 키우고, 과부들을 먹여 살리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까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조선 간호협회도 세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그분이야말로 신명기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게으른 일입니까.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평 선교사님을 늘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섬기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김민희	황정은
김사영	김래경
김우석	박종현
이우성	최병선
임정은	장문정
최자영	석미선
■ 강서	
오성례	김부희
임정희	박영미
정희연	이미자
■ 강촌	
김고운	이현주
김다일	김민찬
김보슬	이혜정
김영실	유효림
황창세	정무형
■ 고양은평	
최혜란	김현숙
한지우	진명선
■ 관악금천	
문홍식	조영의
박인자	오인정
이지영	유선미
■ 광명	
김옥휘	이성순
서경원	김일도
■ 김포	
김동환	이홍두
박미휘	박정민
육지영	유혜정
■ 노원	
구자관	류기선
김기철	김진서
김영미	고정희
한정현	오소희
■ 동대문중랑	
김현진	정연경
조의환	주성대
■ 마포	
고혜경	방지민
김서현	김일숙
노명숙	장순미
성은경	임영애
송일선	조재호
송정운	홍기순
신혜선	라가희
양선호	김정훈
윤보미	이영주
이상봉	김재익
이아름	류민아
차반디	신혜용
■ 북누리	
권인행	홍갑진
■ 서대문	
김미현	김연화
김진성	박 근
노소라	김복숙
손진숙	강성희
심상철	김성일
염상준	이기범
이은빈	박은화
이휘영	심규정
임명숙	정미영
최명덕	이기범
한택수	박현갑
■ 서빙고	
김남희	김혜정
송기국	신문순
이세라	김유정
장혜경	한성자
최지선	조 영
홍현순	김행자
■ 성동광진	
오문평	이종숙
장인경	김선호
장현민	김이준
최재혁	신태형
■ 성북	
김도훈	정화영
김중수	강현원
윤경호	권영철
장복순	강연순
정문숙	이혜선
조재환	한기인
■ 신용산	
목지연	박수연
박성운	이석규
박희경	임선녀
이다금	김연정
최승현	장성란
■ 양천	
김한호	강경록
도현석	박형근
이정은	한상인
정한모	성창섭
■ 영등포구로	
김영환	김영민
오은미	김태희
이승미	유 영
이승연	이지영
이현민	김종흘
이현정	최민선
이혜원	한명순
■ 온누리미션	
투 안	추교명
■ 용산	
김보영	김미애
김정식	이강천
김형진	최종하
신동준	정 욱
윤석환	강명원
조명아	강경열
최경선	강종열
최선이	백주경
황영선	정현주
■ 이수	
이기본	김동영
■ 이촌	
여민경	문명숙
최지호	박영미
한정선	이경옥
■ 일본어예배	
KAWAMURAYOSHKI	정창수
■ 일산	
박혜옥	안미자
오종한	문제헌
■ 중종로	
명지혜	전명주
박수정	이정숙
박혜윤	손민희
이원경	이송강
정명철	문동곤
최미리	이지영
■ 한강	
김지은	복명희
김혜숙	최향숙
신승애	최향숙
조기호	이단열
주재연	김정아
최용하	형세우
홍지희	문성희
■ 공동체없음	
김도영	조애신
김명자	구명순
김세진	박정민
김한나	윤미한
김혜진	정구순
노석모	조성건
안은영	김남정
오현경	김정순
이원희	김수영
이항애	원현숙
이효선	김선홍
차수경	신혜원
차지현	이영지
■ OCC	
고 션	김근철
■ S브릿지	
강현정	김은미
강현희	이승연
김한나	정임순
노혜경	손은혜
박태근	박성기
박하니	최윤정
서지희	정희진
성종명	정민욱
이경은	김정래
이 석	강종도
이영희	김수영
이예진	강은형
이지은	김세원
정은지	염은주
최은영	최진희
한동훈	김영환
황영희	방충애
● 양재	
■ 강남A	
강동구	함상석
김종석	김진세
유수경	박희숙
유순호	박정서
이미정	김영수
이지원	오미영
이창배	공광식
한용순	김경숙
한재키	신진화
홍미영	황경옥
홍장희	장우린
홍진숙	고선옥
황민우	김형주
■ 강남B	
김동진	최명재
김재국	임헌진
윤정의	박차홍
이원정	이경희
이지언	김영주
최연홍	박태성
■ 강남C	
고광옥	이강보
김신희	최명숙
김홍중	유정상
안성아	윤혜신
유이금	김현규
윤형기	황호영
이승한	이상현
임동남	김창원
■ 강남D	
김순아	엄광미
김정욱	이상준
이수진	박태성
이영주	최미애
이주연	도재현
정혜은	김수진
■ 과천의왕	
강향춘	정구순
김기수	한기재
이미영	오순례
정현민	심혜영
■ 분당A	
김지연	홍의순
■ 분당B	
서윤숙	이영진
오정희	윤명자
이명숙	이은덕
이연주	김 희
정혁진	최성일
■ 서초A	
고경애	권정화
김준희	황선구
남혜용	전채주
성민경	설 희
이고은	김서현
이분옥	박인숙
한지숙	김명주
■ 서초B	
남궁열	정철영
박찬엽	박정서
손경숙	이길라
송영호	강기홍
한선미	이종아
■ 서초C	
김승식	박익수
박기희	김희정
양귀남	이점이
■ 서초D	
김남연	정현숙
나미라	정희진
박소영	한경원
백지영	우승연
오유주	신지원
오진석	정용주
오창근	김화선
윤희철	정철윤
이지영	이승희
이철성	이동민
최승돈	박흥선
■ 송파	
김민주	오혜경
김태주	박승병
이명순	양경미
이명옥	박소현
이일규	함종수
■ 안양평촌	
민현진	정헌영
차은빛	이금하
■ 양재	
김남순	권효순
박은영	최연경
박인경	장정아
신미혜	김경심
은종원	한병택
이정보	한병택
장미경	김유순
전영수	이종철
조영옥	현월선
허혜경	이정년
황종환	김재현
■ 특별한초대	
김애니	정성옥
박종호	임재현
이동욱	서광열
조영은	양오순
■ 푸른누리	
김경은	장윤금
김민균	이신준
김상연	전웅기
김희진	김선영
류주연	박은혜
서예원	양연주
송창회	장상원
양현주	김의영
임희수	신호식
진승림	이현주
■ 하나	
이순영	조혜선
■ Bridge33+	
김기웅	박재성
김진영	곽영선
박주란	김지연
서아름	김인숙
성현정	조경아
송희정	이지은
오영무	임강민
이의준	이진이
임지영	김영선
장세화	김영관
정소영	유희수
한소영	강 현
■ Point5	
고관호	이병하
김성훈	박언용
김소은	박애경
김효선	한진수
박창훈	박태호
서석명	김도환
송기혜	황희정
옥순연	백세진
장미래	이경미
허지영	김예선
황경원	장은숙
● 대청	
■ 갈렙	
김지훈	오영민
김호영	양준홍
서은하	김온유
신도희	정지은
■ 길	
박기영	오현주
이진선	김태위
■ 여호수아	
강지은	박명욱
고영미	유병화
김민지	박희란
김지인	김인희
변영경	최경애
서은혜	여민정
성시철	김 준
송여진	이미선
신선미	김윤필
신재환	오영민
양선아	이은주
오정훈	박신민
이기락	서요셉
이시영	신은주
이유경	현옥선
임주연	김선영
장은지	이은자
정연주	허정인
조은정	박애란
주현아	한종란
지선미	진윤아
■ 요셉	
고영훈	오기호
이수연	이현철
■ 하늘	
박지선	이정분
석희진	김경은
■ 허브	
고세원	송정은
권연주	심경희
김범석	김기형
김지원	이일선
박수지	양미혜
박지윤	이혜정
배준협	이기성
송예림	최은영
전지수	이옥상
■ J4U	
김미성	최윤정
김용근	박용진
오원석	김승배
이 슬	강성은
임동옥	유희수
최현영	허 경
홍혜민	박용선
■ Pole2	
양수창	박용익
진보연	박선영
■ SNS	
김미진	박주연
김은주	박진영
나진산	신재영
문하린	김지아
박용재	김성진
염유림	박정민
이슬이	백경화
장재방	김순태
전수영	전정미
정후영	현혜련
차현우	윤석원
황성후	이덕호
■ W	
강진웅	허연무
남궁은경	박명희
박창기	배준학
이승원	오석주
조승민	신용애
한상수	맹완호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4월 23일(주일) 2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대상자: 2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한 성도입니다.

● 서빙고	배윤정	강성석	하태영	이지영
■ 신동식 목사반	손미나	강호찬	■ 이진숙 권사반	■ 조대희 장로반
김영구	김선아	권용범	고종진	김경희
강정윤	김현진	김나원	김남희	배희진
김무환	■ 김영배 목사반	김선정	김수민	이민휘
■ 임용성 목사반	김태주	김제돈	박민영	이아영
김미정	손덕원	김한순	박인미	장송자
정현우	조혜진	김호영	배은희	조혜란
● 양재	■ 양성민 목사반	박현식	이석열	주수일
■ 김소리 목사반	박영경	손경일	조성임	한상일
강은하	■ 유영순 목사반	신동기	조혜은	한은주
		신창순	■ 정재욱 목사반	
		안해옥	이명원	
		이숙영		
		■ 이동훈 목사반		

1144호 20170416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4. 14. 오후 9:40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벡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제115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기간: 4월 22일~5월 14일 총 4주
등록: 수시접수, 선착순 24가정(인터넷접수 www.onnurifamily.com)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65회 성령수련회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시간: 4월 22일~23일(1박2일)
문의: 서빙고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양재 김현옥 집사(010-8955-3610)

창조과학 스쿨 '빛이 있으라'
일시: 4월 16일~ 5월 28일
장소: 서빙고 CGNTV 홍보관
회비: 스쿨 30,000원 / 탐사 80,000원
문의: 총무 010-3869-7785

두란노서원 바이블칼리지 채용 공고
모집: 성경연구학과 디렉터 겸 간사임무 수행(계약직 1명)
마감: 4월 19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서류: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서빙고 주일 7부예배 콰이어모집
시간: 매주 주일 본당 오후 7:30~10:30
문의: 이승윤전도사(010-2701-5309)

두란노서원 예수님이좋아요팀 디자이너 채용 공고
모집: 편집 디자이너
마감 : 4월 30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미용 봉사자 모집
일시: 주일 사역(일정 조정 가능)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8)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의료선교부(CMN) 해외 여름 아웃리치 모집
일자: 8월 11일~16일
지역: 태국 국제학교
모집: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사
문의: 김택수 팀장 (010-8902-5987)

아버지양육자반(양재1기)
일정: 5월 14일, 21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강의동 302호
회비: 15,000원(교재+CD) 현장납부
자격: 초등자녀 둔 아버지(기본원칙) 로서 양육자반 수료 이상
문의: 02-570-7349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선교중보)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영아부예배 오전 11:30 본관2층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영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요시하라마나부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은영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헌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데벤드라 라즈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비랏라살리 백영미 손 숙
싱루아마놉 안희진 이창호 유세르게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제이미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고은아 구민선
기호진 김기락 김기태 김덕기
김민석 김민영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찬숙 김태환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노태규 문대성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신광 박양원 박은미
박은빛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원 박진혜 방세미 백영미
백종갑 서수민 서영희 서종옥
서 철 송지은 신경훈 신대균
신대종 신유수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알벤파엘레비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기철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루주 이미령
이선영 이성광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지훈
장동원 장유미 장윤진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환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환 추대식
최규종 최대흥 최선재 최성규
최성필 최영빈 최재윤 최정현
최종현 최현웅 카와무라요시키 하성희
하승연 하청훈 한성훈 허륜호
허영은 현신원 홍세나 홍순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재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규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니시야마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영민 하카마타미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오광 권희경
금동섭 김도일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대원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엄영기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상훈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기지마에미코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헌얼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윤경선 이민혜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지은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보라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민용
장우진 정길안 조규배 조록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계약자 모집
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
사용: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NGO 더멋진세상 단기 선교사 모집 (해외파송)
파견: 세네갈, 르완다, 필리핀, 스리랑카
지원: 4월 26일까지
지원: www.abetterworld.or.kr
문의: 오정민 PM(02-2271-224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조혜민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바이올린 레슨 및 노트북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길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취업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55세 이상 어르신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이력서, 사진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담비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소천

■ 결혼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여홍섭, 김혜련의 아들 여지현 (온누리교회)
권혁훈, 노금숙(대청교회 장로, 권사)의 딸
권보영(온누리교회)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용성, 김진옥(나눔의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아들
김희중(온누리교회)
박해한, 정명옥(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딸
박상경(온누리교회)

■ 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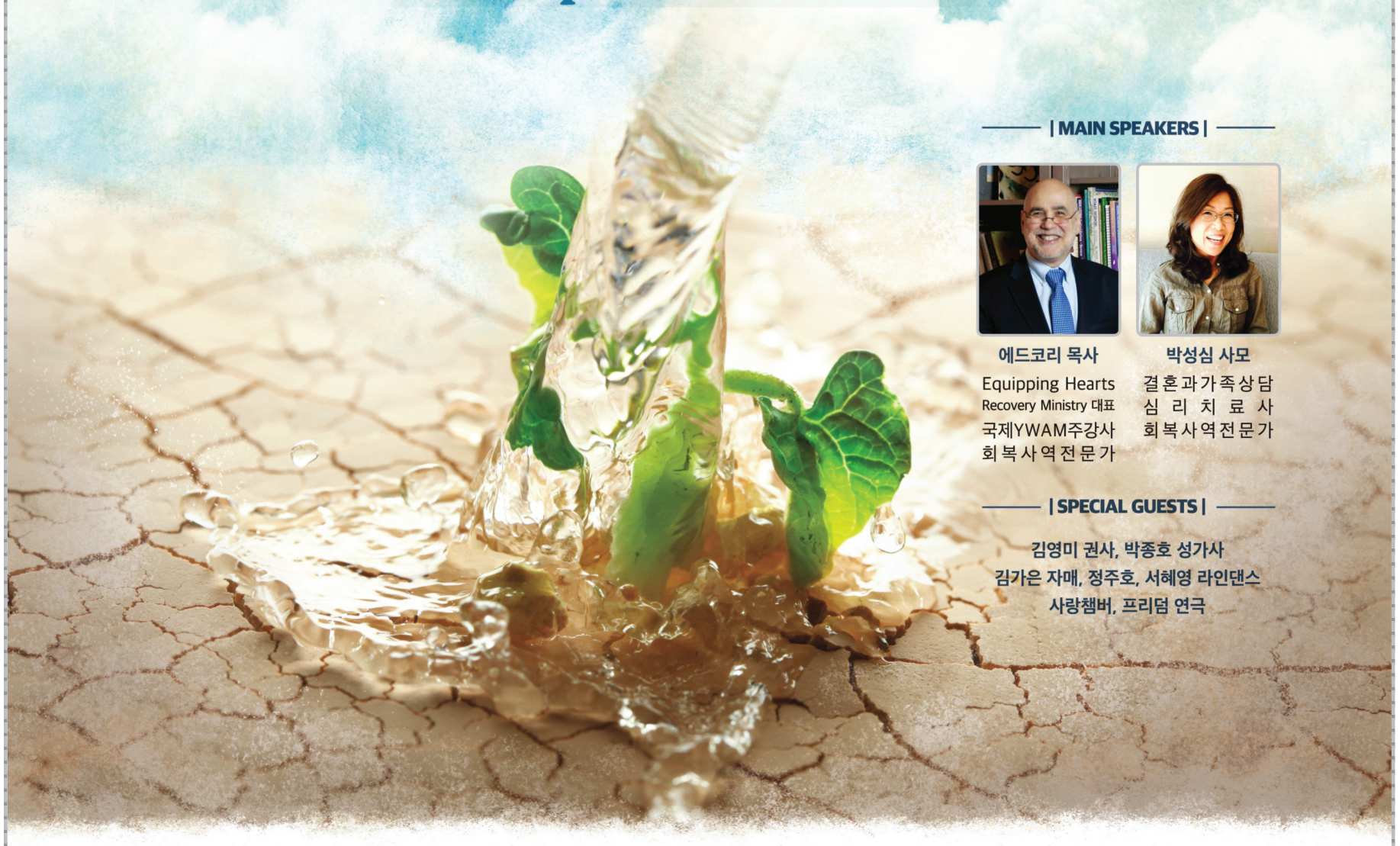
4/7(금) 김포 윤영애 권사 모친상 고 이정순
4/7(금) 찬양사역 김영옥 집사 시부상 고 오자현
4/8(토) 노원 마미선 성도 모친상 고 곽영자
4/8(토) 서초C 이철우 성도 빙부상 고 최신의
4/9(주일) 서초B 박신자 성도 부군상 고 이성봉
4/9(주일) 영등포구로 손병수 성도 부친상 고 손윤근
4/10(월) S브릿지 김성은 성도 부친상 고 김학상
4/11(화) 영등포구로 김창은 성도 모친상 고 배옥덕
4/11(화) 서초C 유광열 집사 모친상 고 이승덕

1144호 20170416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4. 14. 오후 9:40 페이지 3

2017온누리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Banquet of Grace



| MAIN SPEAKERS |

에드코리 목사
Equipping Hearts
Recovery Ministry 대표
국제YWAM주강사
회복사역전문가

박성심 사모
결혼과가족상담
심리치료사
회복사역전문가

| SPECIAL GUESTS |

김영미 권사, 박종호 성가사
김가은 자매, 정주호, 서혜영 라인댄스
사랑챔버, 프리덤 연극

2017. 4.26(수) - 28(금)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 회비: 5만원 / 사전등록(4/18까지) 또는 단체(10인이상) 4만원 / 하나은행 573-910004-30205 (예금주: 온누리교회 회복축제)
· 접수: 홈페이지 www.onnuri.org 에서 신청 (선착순 마감) · 문의: 02-3215-3355, 3532 /02-570-7433 (화~금, 주일 오전 10:00-오후 5:00)

Onnuri
Community Church